



쌍용자동차

보도자료

2012년 5월 3일(목)

쌍용자동차, 1분기 매출 6,440억 ...전년동기 대비 3.8% 증가

- 「코란도스포츠」 등 판매 호조세로 3개월 연속 판매 증가, 전년 대비 6.9% 증가
- 영업 적자 규모 축소 및 EBITDA 흑자 전환 등 손익구조 개선 돼
- 지속적인 상품성 개선 모델 출시를 통한 판매 확대 및 수익성 개선 추진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이유일: www.smotor.com)가 지난 1분기 ▲판매 26,441대(CKD 포함) ▲매출 6,440억 ▲영업손실 326억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러한 실적은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위축 상황에도 불구하고 판매는 전년대비 6.9%, 매출은 3.8% 증가한 것이며 영업손실은 22.0% 감소한 개선된 실적이다.

1분기 판매는 전체적인 내수시장 수요감소 여파로 내수 판매는 3%감소하였으나, 수출은 러시아, 아프리카, 중동, 아/태 지역 등의 판매 물량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13% 증가하였다.

특히 이기간 중 지난 1월 출시 이후 시장에서 큰 호평을 얻고 있는 「코란도스포츠」와 「코란도 C」는 국내외 포함 각각 9,168대, 9,257대를 판매함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0.7%(6,085대), 29.4%(7,155대) 증가하며 판매 증가세를 주도했다.

손익실적 또한 지속적인 판매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 동기(△419억) 대비는 물론 전 분기(△474억) 대비로도 손실규모가 대폭 감소한 326억의 영업손실을 기록함으로써 손익구조 또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인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역시 흑자로 전환되며 향후 경영 전망을 밝게 했다.

다만, 전년대비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것은 지난해 1분기의 당기순이익이 회생채무면제 이익(460억)의 계상을 통해 조정된 것으로 올 1분기 실적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쌍용자동차 이유일 대표이사는 “1분기 판매 증대와 유리한 환율 상황 덕분에 영업손실이 감소되고 EBITDA가 흑자로 돌아선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며 “「코란도스포츠」와 함께 지속적인 상품성 개선 모델 출시를 통해 판매를 더욱 확대하고 수익성 개선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 2012년 1분기 판매 현황

(단위 : 대)

구 분	2012년 1분기(A)	2011년 1분기(B)	전년 동기 증감율(%)
판매대수	26,441	24,741	6.9%
내 수	9,700	9,974	-2.7%
수 출	16,741	14,767	13.4%
(CKD)	(48)	(300)	-84.0%

■ 2012년 1분기 손익 및 재무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 1분기(A)	2011년 1분기(B)	전년 동기 증감율(%)
매 출 액	6,440	6,205	3.8%
영업이익	-326	-419	-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316	26	-
당기순이익	-316	26	-
EBITDA	6	-105	-